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평가와 함의

송태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 일자 **2022. 4. 29.**
발 표 **송태은**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토 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
김상배 서울대학교 교수

발 행 일 **2022년 5월 10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이광희 연구원**
디 자 인 **역사공간**
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 평가와 함의

CONTENTS

문제제기 01
전시 정보심리전의 기능 04
양국 정보심리전의 전술 12
평가 23
정책적 고려사항 31

1. 문제제기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하이브리드전은 전통적인 군사활동과 비전통적인(non-conventional) 군사활동, 무력적 군사수단과 비무력적 군사수단이 다전장(multi-domain)에서 조직적으로 혼합되며 전개되는 전쟁으로서 정규전(regular warfare)과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이 섞여 있는 복합적인 모습을 띰.
- 하이브리드전의 행위자는 정규군뿐 아니라 테러집단, 반군, 극단주의 세력, 범죄집단 등 다양하며,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군사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 등 '전쟁의 외주(outsourcing)'도 동원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도 복잡함.
- 이번 전쟁에는 재래식 무기,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최첨단 신무기, 국제법이 금하고 있는 진공폭탄과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고, 시가전과 같은 비정규전과 정규전 및 사이버 정보심리전(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도 전개되었고, 해커와 IT기업, 국제의용군 및 시민들이 참전하여 전형적인 하이브리드전의 모습을 띠었음.

» 특히 이번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시(wartime) 비무력적 군사활동인 정보심리전은 적국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에 혼선을 유발하며, 적국의 전투 및 저항의지를 좌절시키면서 전세를 주도하려는 전쟁의 중요한 수단임.

이번 전쟁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시 비무력적 군사활동인 정보심리전은 적국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에 혼선을 유발하며, 적국의 전투 및 저항의지를 좌절시키면서 전세를 주도하려는 전쟁의 중요한 수단

○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전장(battlefield) 정보와 내러티브(narratives)를 사이버 공간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키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지지와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디지털 프로파간다(digital propaganda)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양국이 이번 전쟁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보심리전은 현대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현대전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 양국이 이번 전쟁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보심리전은 현대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현대전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특히 이번 전쟁의 정보심리전에서는 전쟁 당사국 정부뿐 아니라,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익명의 해커들 IT 기업, 일반 시민 등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도 정보심리전의 주요 주체였음.

○ 이들은 일국의 편에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정보심리전을 전개하는 등 전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가 되고 있음.

» 이번 전쟁 직전의 단계에서 러시아는 러시아 도발에 명분을 실어주는 다양한 허위 조작정보를 동반한 담론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며 NATO의 동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전쟁이 개시되면서 러시아에 결사적으로 항전한 우크라이나의 반격 정보심리전이 러시아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은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담론의 유포 및 확산을 통해 전개되었으나, 과거 유사한 전술의 정보심리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결과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학습효과를 가져온 것과 세계청중을 견인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실패한 것이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전술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만들었음.

○ 우크라이나의 정보심리전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효과적인 프레이밍과 즉각적인 반격 내러티브 발신,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우크라이나인들의 전쟁 참상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세계적 IT기업들의 러시아 發 담론 확산 차단 노력 등으로 러시아 정보심리전보다 효과적이었음. 또한 서방이 민감한 전황 정보 및 러시아 군사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발신하는 정보와 내러티브의 설득력을 높였음.

»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정보심리전 전술을 전개했는지 설명하고, 양국이 정보심리전을 전개하면서 얻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고 우리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자 함.

2. 전시 정보심리전의 기능

가. 정보전과 정보작전의 개념

» 일반적으로 전쟁의 시작과 종식에 있어서 '정보'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전장에서 직접 대결을 통해 얻게 되는 적에 대한 정보는 협상 테이블에서 얻는 정보와 다름.

- 즉 전장에서는 무력충돌을 통해 군사능력의 상대적 우열이 직접 드러나므로 전장 정보는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될 유인이 큰 협상 테이블에서의 정보와 다름. 전장에서 분쟁국은 물리적인 대결 전에는 가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정보전은 '전쟁의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활동' 이며...

»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IW)'은 '전쟁의 공격작전과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전략적 활동'임.

- 정보전은 다른 군사기술과 비교할 때 자원 투입 대비 효과는 큰 '낮은 진입비용(low entry cost)'의 이점을 가지며 정보전 수행을 위해서는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함.

» 군사활동으로서의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IO)'은 '적과 잠재적 적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들거나, 의사결정을 좌절시키기 위해 다른 종류의 작전과 통합된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아군의 의사결정은 보호하는 정보관련 군사활동(Joint Publication 3-13, DoD)'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전시 정보전(IW)이나 정보작전(IO)은 비폭력적 군사활동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전쟁행위(an act of war)인지'의 여부와 '군사적 대응을 요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임.

» 정보전의 공격 대상은 작전 수행 공간의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ce)의 C3I 체계이나, 사실상 정보전에는 전장의 최전방(front lin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정보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보작전이 일어나는 공간은 '물리적 공간(physical dimension)', '정보공간(information dimension)', 인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지공간(cognitive dimension)' 모두임.

» 오늘날과 같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에 의해 정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전방위로 연결되어 있고 고도의 정보 인프라가 갖추어진 초연결(hyper-connected) 시대의 정보전은 민간영역과 공적영역 간 경계, 전쟁 행위와 범죄 행위 간 경계, 그리고 작전이 수행되는 공간과 비작전 공간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

- 또한 현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ICT 기술의 고도화된 정보생산·정보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국가가 전시에 국내외 정치적 지원을 구축하는 활동에 유용함.
- 사실상 '정보작전(IO)'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공격·방어·착취(exploitation)하는 활동, ▲전자전(electronic warfare, EW),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 PSYOP)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즉 엄밀한 의미에서 심리전은 정보전의 일부로서 전개되는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음.

나. 심리전과 심리작전의 개념

»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 PSYWAR)'은 적국과 적국 대중의 생각,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프로파간다와 심리작전을 사용하는 전쟁을 일컬음.

정보심리전 공격자의 전투력은 메시지의 '내러티브(narratives)'가 갖는 설득력에 있으며...

» 심리전이 정보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대상은 정보커뮤니케이션 행위를 하는 적국과 적국 대중의 '생각'이나 '감정'이므로 정보심리전 공격자의 전투력은 메시지의 '내러티브(narratives)'가 갖는 설득력에 있음.

- 적을 속이거나 자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보의 내용과 메시지의 설득력이 정보심리전의 핵심임.
- 정보심리전에 사용되는 정보와 내러티브는 대개 고도의 설득기제를 통해 고안되므로 대중은 그러한 정보심리전 메시지의 의도를 의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국가 프로파간다가 백색선전(white propaganda), 회색선전(gray propaganda), 흑색선전(black propaganda)의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정보작전 수행에는 진짜정보, 허위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모두가 사용될 수 있음.

- 국가가 국가의 의도, 정책, 가치를 표현하는 각종 성명, 언론보도, 공적 활동은 모두 국가 프로파간다 활동이 될 수 있음.
- 백색선전이란 공식 기관에 의해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수행되는 선전전으로서 전달하려는 정보가 책임성, 신뢰성, 권위(authority)를 갖지만 유포하려는 선전의 내용에는 제약이 있음.

- 회색선전은 정보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선전전으로서 경쟁 대상이 역선전(counter-propaganda)을 수행할 경우 대항하기 어려움.
- 흑색선전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경쟁 대상을 모략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선전전으로서, 정보의 출처를 위장할 수 있고 즉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집중적인 선전전을 펼칠 때 사용됨.
- 고의성 없이 잘못된 정보(false information)를 우발적으로(inadvertently) 공유하는 성격의 정보가 '허위정보(misinformation)'라면,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누군가를 오도하기(mislead)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활동과 관련됨.
- 허위조작정보는 현실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잘못된 맥락(wrong context)에서 제공하기도 함.

» '심리작전(Psychological Operations, PSYOP)'은 자국의 정책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청중(foreign audiences)에게 특정 정보를 유포하고 설득하여 적국, 중립국, 우호국들이 자국과 동맹국에게 유리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비무력적 군사활동임.

- 심리작전은 평시(peacetime), 비상시(contingencies), 전시(wartime) 모든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비무력적 활동이나 폭력적 상황에서 군사적 파괴력을 배가시켜주는 수단(force multipliers)임.

심리작전은 자체로는 비무력적 활동이나 폭력적 상황에서 군사적 파괴력을 배가시켜주는 수단

- 심리작전은 메시지 수신자에게 특정 감정, 태도, 행동을 유발하고자 하며, 국가 안보 목표를 전술적(tactical), 작전적(operational), 전략적 수준(strategic level)에서 지원함.

- 미국 국방부의 경우 2010년 'Joint Publication 3-13.2'에 따라 PSYOP을 '군사정보지원작전(Military Information Support Operations, MISO)'으로 규정했었으나 MISO 용어가 다소 헷갈리는 개념으로 인식됨에 따라 다시 PSYOP 용어를 재사용하는 추세임.

» 심리작전이 의도하는 내러티브의 전략적 효과는 〈표1〉이 나열하는 것과 같이 다양함. 즉 심리전 내러티브는 정책결정자의 정확한 정보분별을 방해하여 속이고, 주의를 분산시키고 왜곡하며, 정보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경계심을 완화시키거나 좌절감을 유발하여 정책결정을 마비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노릴 수 있음.

- 심리전은 적국 정부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의사결정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적국 대중의 공격 국가에 대한 반전(antiwar) 여론을 유도할 수도 있음.
- 심리전은 공격대상 사회의 내러티브와 유통되는 정보를 통제하면서 대리(proxy) 행위자가 급진적, 극단적 행동을 자극하여 산발적이거나 혹은 대규모의 폭력을 촉발시킬 수 있음.
-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개시되기 전에 리플릿(leaflets), 라디오, 인터넷, 스피커, 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리전을 수행해옴.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대중이 리플릿의 내용에 설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플릿이 생화학 독성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관료들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리플릿을 제거하는 등 반격심리전을 펼침.

〈표 1〉 **적국의 의사결정 교란을 위해 심리작전이 의도하는 효과**

전략적 의도	공격자가 의도하는 효과
기만(Deceive)	적국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군대 자산을 재배치하게 만듦.
지연(Delay)	적국의 시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킴.
차단(Deny)	중요 사안을 특정 프레임으로 보게 만들어 적의 정확한 정보분별 차단
억지(Deter)	위협이나 장애 극복 가능성에 대한 좌절감 주입
주의분산(Distract)	적국이 공격목표에 집중할 수 없도록 실제 혹은 가상의 위협, 이슈, 장애를 발생시킴
분열(Divide)	적국 정부가 동맹의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
왜곡(Manipulate)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에 대한 고의적인 공작이나 왜곡
과부하(Overload)	대량의 정보발신
진정(Pacify)	예상되는 위협이나 공격적 활동에 대한 적국의 경계심 완화 (예: 공격적 대비태세가 아니라 마치 예정된 통상적인 훈련이 진행되는 것처럼 인식하게끔 유도)
마비(Paralyze)	적국에게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거나 혹은 적국의 취약성을 이용해 적의 대응 움직임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무력화시킴
압박(Pressure)	적국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 혹은 위협
자극(Provoke)	공격목표로 삼는 대상에 대해 적국도 공격적 행동을 하도록 유발
정보제시(Suggest)	적국의 법·도덕·이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유출
손상(Undermine)	대중의 적국 정부에 대한 신임이 줄어들도록 적국 정부의 정당성 약화

출처: Errey(2019)[1)]

» 작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작전은 특정 작전영역(the theater of operations) 속에서 보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전장에서 이루어질 전투(combat)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음.

1) M. Hammond Errey. "Understanding and Assessing Information Influence and Foreign Interference" Journal of Information Warfare 18-1(2019), p.6.

»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의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은 러시아의 시각에서는 서구권의 전복적인 목적을 위한 프로파간다 활동이며 러시아군 총참모장이자 제1국방차관인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가 고안한 '현지 적응 접근법(adaptive approach)'과 동일한 전술로서 인식되고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이 정보심리전을 통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핵심 적대세력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면서 적대세력의 주변국 정권교체를 통해 핵심을 파괴시키려 한다고 인식.

» 전시 심리작전은 영향을 끼치려는 시민과 군대의 감정과 행동을 다양한 설득활동으로 통해 유발해냄. 적국의 군대가 항복하고 적국의 시민이 아군을 지지하도록 하는 심리작전은 사실상 전쟁에 의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

- 심리작전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learning), 동기부여(motivation), 인지(cognition), 문화(culture), 설득기제 등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함.
- 특히 전시에는 "공격행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if-then'메시지를 적국에 발신하는 방법이 취해짐.

» 정보심리전의 대표적인 활동인 허위조작정보 유포(disinformation campaign)의 주요 진원지들은 대개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대표적임.

-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국가가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미얀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의 능력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2〉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하는 사이버 부대 운영 능력이 최고 수준인 국가**

HIGH CAPACITY		
Country	**Status**	**Notes on Team Size, Training and Spending**
China	Permanent	Team size estimates of 300,000-2,000,000 people working in local and regional offices
Egypt	Permanent	–
Iran	Permanent	6,000 USD spent on FB advertisements
Israel	Permanent	Team size estimates of 400 people. Evidence of Formal Training. Multiple contracts valued at 778K USD and 100M USD.
Myanmar	Permanent	Evidence of Formal Training in Russia
Russia	Permanent	–
Saudi Arabia	Permanent	Estimated costs of 150 Pounds for Twitter Hashtag Trends
Syria	Permanent	Multiple Contracts valued at 4,000 USD
United Arab Emirates	Permanent	Multiple Expenditures valued at over 10M USD
United States	Permanent & Temporary	–
Venezuela	Permanent	Team size estimates of multiple brigades of 500 people. Evidence of Formal Training
Vietnam	Permanent & Temporary	Team size estimates of 10,000 people

출처: Global Disinformation Order, University of Oxford(2019), p.18.

3. 양국 정보심리전의 전술

가. 러시아의 정보심리전

» 러시아는 국가안보위원회(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 군사정보국(GRU), Russia Today(RT), Sputnik 등 관영 매체, 러시아 정부와 계약을 맺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민간 IT 기업을 이용하여 정보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

» 전쟁 전 러시아는 침공 명분을 다지고 현지인의 저항을 누그러뜨리며,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을 조성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 "서방의 이간질로 러시아와 형제국가인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악화되었다", "NATO의 동진이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논리 내세웠음.
- 이 같은 주장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사용한 것과 유사한 내러티브로서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유발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의 최종 국면에서 결정적인 군사행동을 전개하여 값싼 전쟁 승리를 거둠.

전쟁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우크라이나의 대항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가짜뉴스를 광범위하게 유포

» 전쟁 초반 전장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우크라이나의 대항 의지를 좌절시키려는 가짜뉴스를 광범위하게 유포함.

○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로부터 도망갔다”,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에 대해 군사공격을 했다”,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 되었다”는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림.

○ 전쟁 초기 해외 언론은 러시아의 관영매체 發 가짜뉴스를 보도하기도 했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과 지역 전문가들은 “NATO의 동진이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합리화하는,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

〈표 3〉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유포한 허위조작정보와 의도**

시기	러시아 發 허위조작정보	의도
전쟁 전	•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이다” • “서방의 이간질로 러시아와 형제국가인 우크라이나 간 관계가 악화되었다” • “NATO의 동진이 이번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침공 명분 합리화, 현지인 저항 억압, 국제사회의 동조 유발 의도
전쟁 초기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로부터 도망갔다” •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에 대해 군사공격을 했다” •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 되었다” •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거나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저하는 인상을 주어 우크라이나의 대항의지 좌절시키려는 의도
본격적인 전면전	•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연구를 은밀히 후원하고 있다” •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지역 홀리브카를 폭격하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 “우크라이나인들이 휴전 기간 동안 러시아군에 발포했다” • “네오 나치주의자들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막이로 삼아 뒤에 숨었다” •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을 개발 중이라는 증거를 발견했다” • “우크라이나의 네오 나치주의자들이 치명적인 도발을 일으키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핵 시설을 점령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중상모략 및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혐오유발 통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과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려는 의도
	• “러시아 미사일로 폭격당한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 우크라이나군과 급진 세력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이었다” •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영상 속 시신의 팔이 움직이는 등 우크라이나가 가짜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 정보와 주장에 대한 반박정보 제공하고 가짜뉴스 이미지와 영상 제작, 유포하여 우크라이나 發 정보 신뢰성 훼손하려는 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우크라이나 내 여론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가짜깃발작전과 같은 위장전략을 펼치며...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우크라이나 내 여론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가짜깃발작전(False Flag operation)' 혹은 '마스키로브카'전략과 같은 위장전략을 펼침.

○ 러시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 명의 중무장 병력을 이동시켜놓고 전쟁을 계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러시아의 요구를 서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위협을 지속해옴.

○ 러시아는 자국의 군 자산에 대한 서방의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들고, 서방의 위성에 촬영될 수 있는 중무기의 실제 이동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푸틴의 미끼(Putin's decoy)'로 불리는 가짜무기를 빈번하게 사용해왔음.

○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해 촬영된 러시아의 전투기의 날개와 꼬리 등의 동체가 격납고가 아닌 노천 도로 위에 놓인 사진에 대해 공기를 주입해 만들거나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가짜 무기라는 추측이 있음. 2021년 4월 러시아 국방부 텔레비전은 가짜 전투기, 군 막사, 탱크, 트럭이 제조되는 현장을 실수로 방영한 바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중상모략하는 다양한 음모론과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혐오유발을 통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과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며...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중상모략하는 다양한 음모론과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혐오유발을 통해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학살과 인권유린을 정당화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도발을 했다"거나 "파시스트나 네오나치(neo-Nazis) 세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명분을 내세움.

- Russia Today(RT), Sputnik, TASS와 같은 러시아의 관영매체 혹은 정부와 연계된 미디어들은 “biological”단어를 한 주에 600회 트윗하는 등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하는 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생물무기 연구를 은밀히 후원하고 있다고 주장.
- 2022년 2월 3일 미 국무부는 입수한 첩보에 의거, 러시아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산 혹은 NATO 산 무기에 의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학살된 영상을 제작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있는 정황을 발표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병원과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기도 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매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發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국의 반전 여론을 무마하려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시민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매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發 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국의 반전 여론을 무마

-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있던 임산부의 참상 사진이 러시아의 비인도적 침공을 비판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각국 언론사가 사용하자 러시아는 안면출혈을 포도주로 분장하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가 연출한 장면이라고 주장. 폭격당한 병원이 운영이 중단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는 건물이라고 주장.
- 러시아는 부차에서의 민간인 학살 정황이 담긴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한 영상에 대해 “우크라이나가의 영상 속 시신의 팔이 움직이는 등 우크라이나가 가짜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반박함.

나. 우크라이나의 정보심리전

» 우크라이나가 해외정보부(Foreign Intelligence Service, FIS)를 설립한 이후 최초로 발간한 『2021 국방백서(2021 White Book)』는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의 최대 안보위협이라고 적시하고,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의 주된 하이브리드 전술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정보전이라고 강조함.

- 이 백서는 당시 러시아가 확산시킨 주요 내러티브가 “우크라이나는 극우 극단주의로 사회가 분열된, 불안정한 국가이며 우크라이나는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언급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도 러시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 여론의 간극을 넓히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주장함.

» 우크라이나는 2015년 초부터 Ukraine Today와 StopFake와 같은 해외 발신에 중점을 둔 미디어 플랫폼과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했고, 정부가 선도적으로 “진실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파간다이다(The best propaganda is the truth)”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러시아 발 내러티브의 기만성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보를 국내외로 확산시켜옴.

» 우크라이나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는 전황에 대해 지속적인 기자회견(press briefings)을 제공하고 국내외 미디어가 분쟁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우크라이나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전황 관련 정보가 지속적으로 국내외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시기 러시아 發 정보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미 서방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음. 특히 2020년 1월 말 우크라이나의 PSYOP 팀은 독일의 합동다국적대응태세센터(Joint Multinational Readiness Center)에서 진행되는 군사훈련인 'Combined Resolve XIII에 참여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시기 러시아 發 정보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이미 서방과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으며...

- 2020년 훈련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17개국이 10일 간 훈련하였고, 특히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과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정보심리전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졌음.
- NATO는 2015년 3월 'East StratCom Task Force'를 조직하여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에 취약한 동유럽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온 바 있음.

»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즉각적인 메시지 발신을 통해 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등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도록 세계여론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고 있음.

- 볼로드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이 전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황을 알리고 화상회의를 통해 타국 의회를 대상으로 연설하는 활동은 일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의 정부와 대중을 대상으로 군사적·외교적 지원을 요청하는 최초의 사례임.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한 반격 내러티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러시아 發 정보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을 훼손시키고 러시아의 거짓말쟁이 이미지 고착에 성공함.

- 러시아가 주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Instagram과 Tweeter를 통해 자신과 데니스 슈미할 총리 등 지도부 인사가 모두 수도 키이우(Kyiv)에서 항전하고 있음을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알린 영상은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킴.
- 젤렌스키는 3월 4일에도 러시아의 피신설을 반박하며 키이우 대통령 집무실에서 안드리 예르막 비서실장과 함께하는 영상을 게시했고, 이 영상은 업로드 11시간 만에 533만 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5만여 개 댓글이 달림.
- 국제적 메시지 발신에 있어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직업을 통해 훈련된 고도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술 즉 드라마틱한 방식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

우크라이나는 양국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전쟁이기보다 '민주주의 진영 vs. 푸틴의 전쟁'으로 프레이밍하면서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연대를 호소

» 우크라이나는 양국의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전쟁이기보다 '민주주의 진영 vs. 푸틴의 전쟁'으로 프레이밍(framing)하면서 국제사회에 민주주의 연대를 호소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의 안보도 위험해진다"는 논리로 서방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설득함.

»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내러티브는 자국을 전쟁의 '약자' 혹은 '피해자'로서 묘사하는 식의 감정적 호소에 집중하지 않고, 강대국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일치된 마음'으로 용맹하게 항전하는 '작지만 강한 국가'의 이미지로서 묘사함.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내러티브는 자국을 '일치된 마음'으로 용맹하게 항전하는 '작지만 강한 국가'의 이미지로서 묘사

-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스네이크섬 국경수비대원 13명이 러시아 최대 전함 "모스크바함"의 항복 불응 시 포격하겠다는 경고에 대해 "러시아 전함, 꺼져라"라고 욕설을 외친 대원들의 에피소드는 이들의 음성녹음파일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면서 해외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킴.
- 이들의 에피소드는 이후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에 의해 침몰되면서 우크라이나 기념우표의 그림이 되었고 현지에서 판매 10일 만에 70만 장이 판매됨.

» 우크라이나는 AI 안면인식 기술인 Clearview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8천6백명이 넘는 생포되거나 죽은 러시아 군인들의 안면정보를 수집하고 'Find Your Own'과 같은 Telegram 채널을 통해 러시아 가족들에게 알림으로써 러시아 내 반전여론을 유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러시아가 배우나 러시아 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로필 이미지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군인이 생포된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에 따른 반격전략임.
- Clearview AI가 러시아의 허위조작 이미지를 스캔하자 이 이미지들이 러시아의 최대 소셜미디어인 VKontakte(VK)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수집된 것이었을 발견함에 따라, 러시아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를 심리전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번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유도하기 위해 엔터테인트먼트의 성격을 갖는(entertaining) 조작된 디지털 정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서방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공습 위험성을 경고하고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도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를 사용하기 위해 프랑스인이 만든 합성 영상인 파리 에펠탑이 폭파되고 파리가 공습당하는 45초 분량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60만회 조회되었음.
-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안국(Security Service of Ukraine, SSU)은 소위 '키이우의 유령(Ghost of Kyiv)'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에이스 파일럿이 개전 후 30 시간 동안 6대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영상을 제작하고 트위터와 70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는 Telegram 채널에 게시함. '키이우의 유령'의 실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Clearview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안면인식 정보는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러시아 스파이가 진입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내 개인의 수상한 소셜미디어 활동과 그러한 개인이 교류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Facebook, Instagram, Telegram, Twitter, Tiktok에 전황을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게시하여 전쟁을 생중계하고 있고, 정보심리전에 동참하고 있으며...

» 전쟁정보와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당하고 있는 러시아 대중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Facebook, Instagram, Telegram, Twitter, Tiktok에 전황을 실시간으로 이미지와 동영상을 게시하여 전쟁을 생중계하고 있고, 정보심리전에 동참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러시아 군의 무력함과 병참문제의 존재, 민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공격 등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이번 전쟁이 명분이 없고 러시아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효과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쟁 기록물을 실시간으로 대규모로 만들고 있는 셈.
- 우크라이나 시민은 동료 시민이 트랙터로 러시아 탱크를 견인하고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에 맞서며 연료가 떨어진 러시아 군인에게 말을 거는 영상, 화염병을 제조하는 장면이나 차속에서 화염병을 러시아 탱크에 던져 탱크를 불태우는 장면,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를 담배를 피우며 손으로 제거하는 영상을 직접 온라인에 올려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제공했고 항전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전시 소셜미디어 활동은 정보심리전 활동과 다름이 없으나 시민들이 직접 알리는 전장 정보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비할 때 정보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신뢰성(credibility) 측면에서 걸러지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타국 시민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직접 정보임.

»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러한 정보심리전 활동은 '디지털 시민운동'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분출'의 성격도 가짐. 이번 전쟁은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시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 정보심리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이러한 정보심리전 활동은 '디지털 시민운동'과 '집단지성의 분출'의 성격도 가지며...

»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IT Army를 조직해서 러시아 매체를 해킹하거나 러시아 發 가짜뉴스를 스팸으로 만들었고, 웹 디자이너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인포그래픽(infographic)으로 제작해서 온라인에 제공했으며, 러시아군이 방향을 잃도록 로드사인을 없애는 활동을 서로 알리는 등 정보전 활동에 직접 가담하고 있음.

4. 평가

»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이 이번 전쟁에서 목표로 한 효과를 낳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명분 없는 전쟁'을 수행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과거 지속적으로 서방과 동유럽에서 반복한 러시아 내러티브의 기만성으로 인해 러시아 發 정보가 설득력을 잃은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세계 IT 기업이 러시아 發 담론이 국제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러시아 관영매체의 콘텐츠를 차단한 반면 우크라이나의 담론은 확산되도록 지원한 것을 열거해볼 수 있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2014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하여 효과적인 반격 내러티브를 시의적절하게 발신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발신하는 내러티브를 효과적으로 프레이밍했으며, ▲서방이 러시아의 군사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적절하게 제공하여 우크라이나가 정보우위를 누릴 수 있었고, ▲세계 IT기업이 우크라이나의 정보심리전 담론이 우세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한 정보심리전 가담 등으로 러시아보다 성공적인 정보심리전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대한 국내 반발

» 러시아 정부는 전쟁 목표와 명분을 군인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전쟁을 개시함으로써 명령불복과 사기저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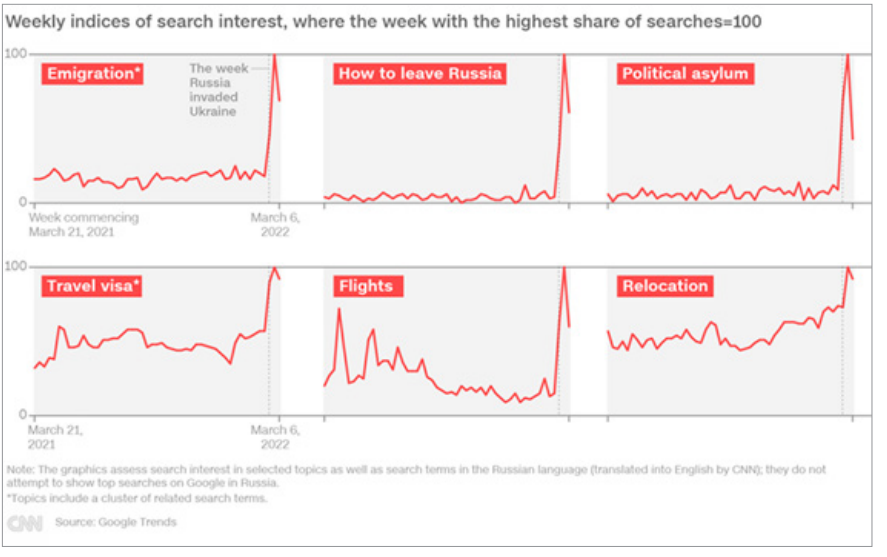
- 러시아는 해외정보에 노출된 국내 대중이 반전여론을 형성하거나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행하고 있는 자국 군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에 대해"'침략'이나 '침공'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이다"라고 주장함.

- 명령이행을 거부하거나 무기를 고의적으로 파괴시키는 등의 행동을 보인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의 목적과 명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음.

»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전면전을 치르기 위한 절대 조건인 국내 대중의 전쟁지지 여론을 구축하는 데에 실패하여 대규모의 국내 반전시위가 일어났고, 러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고 언론을 검열하며 시위하는 시민들을 탄압함.

- 러시아 대중의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안감은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러시아 대중의 구글 검색추이(Google Trend)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대중의 지지가 견고하다는 언론보도는 러시아 정부의 언론검열과 통제에 의한 조작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거나 러시아 대중의 전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내에서 확산된 반전여론과 러시아 대중의 시위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대규모 시위 대중을 체포함으로써 반전여론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해왔음. 모스크바에서 3천 명이 넘는 러시아 시민이 체포되었고, 피터스버그에서도 2천 명 이상의 시민이 체포됨.
- 러시아 정부는 반정부 성향의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와 TV방송 '도즈디TV'의 방송 송출 중단시킴.

〈그림 1〉 **전쟁 개시 일주일 간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러시아 대중의 구글 검색추이**



〈그림 2〉 **체포된 반전시위 러시아 시민의 수와 구금된 장소**



나. 러시아 내러티브의 세계청중 견인 실패와 우크라이나 내러티브의 선전

러시아 정보심리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러시아 發 내러티브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익숙해진 것 즉 '학습효과를 지목할 수 있으며...

» 러시아 정보심리전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러시아 發 내러티브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익숙해진 것 즉 '학습효과(learning effects)'를 지목할 수 있음.

- 러시아가 2016년 이후 서방의 선거철 빈번하게 전개한 허위조작정보 활동을 통한 선거개입과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해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심리전은 서방과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의 심리전 전술을 분석하고 연구하게 함.
- 러시아 發 가짜뉴스가 고도의 설득기제를 통해 생산되고 유포되어도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의 정보 자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러시아 관영매체의 보도나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정보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잃었다고 볼 수 있음.

» 디지털 공간의 영향공작 활동을 분석하는 워싱턴 DC 소재 조사기관 Omelas는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면서부터 러시아 미디어의 영향공작이 목표청중(target audiences)을 견인하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내림.

- 침공 전까지 러시아 관영매체의 내러티브는 모든 다양한 언어 및 콘텐츠 측면 모두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음. 즉 러시아 관영매체는 소셜미디어에 12,300개의 콘텐츠를 게시하면서 130만 명의 청중을 견인하고 있었음.
- 대조적으로 서방 매체는 총 116,000개의 콘텐츠를 통해 4천4백8십만 명의 청중을 견인 중이었음. 러시아의 세계청중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어 정보에 있어서 서방을 압도할 수 없었던 데에도 있었음.

» 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도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가세하는 방식으로 '푸틴 vs. 민주주의의 대결', '작지만 강한 우크라이나', '용감하고 일치단결된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 '거짓말쟁이 러시아'등의 공격적인 프레이밍을 통해 반격 내러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신했고 전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전에서도 우위를 누림.

다. 서방 IT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력 효과

» 러시아 정보심리전 내러티브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의 불신 외에도, 전쟁 정보와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서방 IT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했음.

전쟁 정보와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서방 IT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불리

-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들은 서방 IT 기업이 러시아의 정보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러시아 자국 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의 정보심리전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우주기업인 스타링크(Starlink)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이 파괴되고 정전을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미국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가 협업함.

◎ 2월 26일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Vice Prime Minister) 겸 디지털혁신부(Minister of Digital Transformation) 장관은 일론 머스크 회장에게 트윗 메시지를 띄우며 "당신이 화성을 식민지화 하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 한다. 당신의 로켓이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동안 러시아 로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한다.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론 머스크가 이에 화답하여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함.

Facebook, Instagram, YouTube, 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Meta나 Google이 RT, Sputnik, TASS와 같은 러시아 관영매체를 차단하고 세계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러시아 發 내러티브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며...

» Facebook, Instagram, YouTube, 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Meta나 Google이 RT, Sputnik, TASS와 같은 러시아 관영매체를 차단하고 미국 내 이들 매체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는 등 세계적 IT 기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러시아 發 내러티브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

◎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하는 Facebook, Instagram, Twitter, YouTube, Telegram, Odnoklassniki, VK 계정, 그룹, 페이지, 채널들의 네트워크가 모두 폐쇄되고 수상한 채널들도 삭제되었음.

◎ EU도 러시아 기업과 러시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유럽 기업이 러시아 관영매체의 콘텐츠를 송출하는 것 금지함.

◎ 우크라이나 에이스 파일럿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영상이 허위조작정보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게시한 해당 영상과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Poroshenko)가 게시한 2019년 국방부 영상에 오정보에 지정하는"out of context" 플래그를 지정하지 않음.

라. 서방의 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 지원

≫ 서방은 러시아의 민감한 전쟁정보를 선제적으로 노출하고 전쟁에 대한 내러티브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내러티브를 정의하지(define) 못하게 막았고, 이러한 노력은 전쟁 시작 전부터 시작되었음(pre-invasion messaging).

- 서방은 푸틴의 전쟁을 '망하는 전쟁(a failing war)'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발신했고, 이러한 프레이밍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옴.
- NATO의 동진이 러시아의 도발을 야기했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공유하는 지역 전문가들의 설명과 달리 서방은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an invasion)"로 명시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러시아의 재앙'으로 묘사함.
- 또한 러시아가 키이우(Kyiv)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재배치(repositioning)"로 설명하는 등 서방의 전장에 대한 내러티브는 공세적으로 공개적인 성격을 띠었음.

서방은 푸틴의 전쟁을 '망하는 전쟁'의 이미지로 지속적으로 발신했고, 이러한 프레이밍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며...

≫ 과거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는 종류의 기밀정보를 미디어에 직접 밝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전장에 대한 직접 언급은 국제사회의 주목 효과를 가져왔음.

- 미국은 러시아 군이 진흙탕에 빠져 사기를 잃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심각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존재로서 부각시켰고, 동시에 러시아 내부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함.
- 미국은 푸틴이 국내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 악화되고 있는 전장에 대한 정확한 첩보와 제대로 된 조언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 서방 정보기관들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이 실제로 어떻게 싸우고 있고 세계 경제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제대로 조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망신시키는 프레이밍은 러시아 내부 불화가 생기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며...

-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망신시키는(humiliating)' 프레이밍은 러시아 내부 즉 러시아 군, 정치지도부와 정보기관 엘리트들 간의 불화가 생기도록 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옴.

» 서방은 러시아 군에 대한 도청 내용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과시했고 러시아에 충격을 주는 효과도 노림.

-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 첩보의 탁월성이 입증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쟁정보와 첩보를 입수하고 있는지는 전쟁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음.
- 러시아 침공 몇 시간 직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로 곧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미국 정보기관은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경고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 직전 그러한 정보를 믿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 군의 수준과 리더십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해온 것은 증명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의 구축

» 최근 정보심리전은 평시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포 활동을 통해 빈번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정보심리전을 비롯하여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전과 난민, 테러 등 초국가적, 복합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범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위기 전 주기에 걸쳐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위기의 성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통일성 있게 대응하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정보시스템과 핵심 인프라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함.

» 특히 사이버전과 사이버 정보심리전 등 비전통 안보 위기가 군사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위기대응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러한 위기에 대한 국내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위기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더불어, 위기 발생 시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조정의 문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등 모의훈련을 정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정보작전과 심리작전은 모두 작전의 계획과 실행을 분리시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NATO의 경우도 전략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조직(Strategic Communications Centre of Excellence)과 실제 심리전 계획을 실행하는 조직이 다름.

나. 동맹 및 우호국과의 정보심리전 공조를 위한 협력의제 발굴

»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고 있듯이, 정보심리전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동맹 및 우호국과의 공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임.

- 우리 정부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동맹인 미국과 아울러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 정보심리전 공격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이들 국가들의 각 부처와 어떤 명분을 통해 어떤 종류와 수준에서의 협력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제를 마련해야 함.
- 우리 정부는 동맹과 우호국들과 정보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토론과 훈련 촉진, 위협 대응의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활동, 다양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에 AI 기술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따른 협업과 공조의 틀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미국과 NATO가 그동안 시행해온 다양한 위기관리훈련과 사이버 테러, 소셜미디어 허위조작정보 유포, 해킹, 테러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에 우리의 군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여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우리가 기여할 바를 탐색할 필요도 있음.

» 한국은 최근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사이버 안보 기구인 NATO 사이버방위센터(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CCDCOE)의 非NATO 회원국으로서 가입하여,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와 함께 사이버방위센터의 5개 '기여국'이 된 만큼 앞으로의 왕성한 활동과 기여가 기대되고 있음.

- 한국은 2019년 7월 NATO의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모의 군사훈련인 '라키드쉴드훈련(Exercise Locked Shields)'에 2년 연속 참가한 바 있음.
- '라키드쉴드훈련'은 단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규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상정하고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시스템 및 정보환경을 방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다. 정보심리전 대응 관련 역량 구축

»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나 적대적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이나 우리에 대한 해외여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한 정보흐름을 포착해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과 범부처 통합적 대응 시스템 및 역량을 시급히 갖춰야 하며, 관련된 연구와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정보심리전 대응에 있어서 각각 어떤 역할에 초점을 두고 서로 어떻게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정보작전과 심리작전의 기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동기부여, 인지, 문화, 설득기제 등 사회심리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므로 그러한 인력 발굴을 서둘러야할 시점임.

»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보심리전 대응과 반격에 우위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역량에는 서방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 2014년 이후 유럽이 NATO와 EU간 공조를 통해 마련해 온 위기관리 대응태세가 이번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따라서 유럽이 마련한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검토하고 우리의 안보환경에 적용하여 대응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EU 대외관계청(EEAS)의 위기대응체제(CRS), 정치적 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IPCR) 메커니즘,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Hybrid CoE), NATO상황센터(SITCEN), 위기관리 재난대응 센터(CMDR COE), NATO전략커뮤니케이션 센터(NATO StratCom COE), 합동정보안보부(JISD), NATO사이버공간작전센터(COC)와 사이버방어협력센터(CCDCOE)를 설치하는 등 정보심리전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전과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태세를 긴 기간에 걸쳐 마련해왔음.
- NATO가 1992년부터 시행해온 위기관리훈련(Crisis Management Excercise, CMX)가 2016년부터는 사이버 테러, 소셜미디어 허위조작정보 유포, 해킹, 테러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민군이 함께 대응하는 훈련을 포함함.

라. 외부로부터의 정보심리전 공격에 대한 대비

»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 혹은 정보심리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하는 일은 중국이나 북한 등 우리가 누구를 목표청중(target audience)으로 삼고, 어떤 형태의 어떤 정보와 내러티브를 어떤 방식으로 발신할 것인지 정하는 것임.

» 중국이나 북한의 우리에 대한 정보심리전 공격 사실이나 허위조작정보 유포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수집과 체계적인 분석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 구축이나 정보심리전 대비 활동의 필요와 시급성을 국내에 설득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정보심리전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 구축이 국내 여론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충분한 설명과 필요한 장치마련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확대되어 국익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함.

- 시민사회가 우려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정보심리전 대응체제나 전략커뮤니케이션 체제가 국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여론 검열에 개입하는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외부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IFANS